

라오스 보건과학대학교 국제협력개발 경험

이유미, 이승표*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해부학교실

접수: 2018년 12월 24일/ 수정접수: 2018년 12월 26일/ 게재 승인: 2018년 12월 26일/ 출간: 2018년 12월 31일

공적개발원조는 흔히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는 약어로 불리며, 공여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유, 무상 원조를 통해 수여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국제개발협력은 ODA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빈곤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한다. 교육분야 개발협력을 통하여 개발도상국들의 역량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빈곤의 탈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의학분야에서의 국제개발협력은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치의학 분야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더욱 많은 치의학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015년 1월 5일 부터 2015년 2월 4일까지 라오스의 University of Health & Science, Faculty of Dentistry (UHS, FOD)에서 국제보건협력재단의 이종욱 펠로우십 사업의 자문관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였다. 우선 학생들의 기초 및 임상 치의학 실습 교육을 자문하고 지도하였다. 교육 이전과 이후 설문 조사를 통한 활동 효과 분석을 총 56명 학생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UHS, FOD 교수진 면담 및 자문을 수행하였다.

실습교육은 치아형태학과 치과총의치학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설문 조사 결과 자신과 동료의 치아형태학과 치과보철학의 지식 및 수기 능력 향상에는 모두 큰 점수 향상 폭을 보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수기 능력이 향상하였다고 자체 평가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공여국 자문관의 파견 실습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였고, 이러한 활동이 수여국 대학의 교육 발전에 대한 동기 부여와 지속성 제공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수여국의 발전을 위한 치의학분야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국제협력개발, 공적개발원조, 라오스

* 교신저자: 이승표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해부학교실 03080

Tel:+82-2-740-8671, E-mail: orana9@snu.ac.kr

서론

공적개발원조는 흔히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는 약어로 불리며, 공여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유, 무상 원조를 통해 수여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¹⁾. 또 다른 정의는 ODA 공여국을 대표하는 협의체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산하의 DAC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의한 것으로 개발원조 (development assistance)를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이동(flow of financial resources to developing countries)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자금의 이동은 공적지원과 민간지원으로 구분되며 ODA는 공적지원에 해당한다²⁾. ODA는 무상 지원과 유상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상 지원은 상환의 의무 없이 지원되는 현금, 물자 및 서비스 등을 의미하고, 유상 지원은 수여국이 향후 상환의무를 지게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자, 상환기간 등에서 수여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되며, 채무 탕감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공여국의 이익을 위한 군사적, 사회적 복지 등의 제공은 ODA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개발협력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은 ODA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내에서의 빈곤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한다²⁾. 개발도상국의 빈곤의 발생은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국가와의 문제도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빈곤문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경제적 해결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이루어진 단순한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사회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데 개발도상국 역시 공감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같은 국가 주도형 발전 모형을 시행하여 빈곤으로부터 벗어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경험은 유사한 성장과정을 겪고 있는 다른 개도국에도 적용 가능한 것이며³⁾,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교육’이었다. 교육은 인재 양성의 가장 기본적 방법이며 피교육자의 교육자 전환을 통한 우수 인력 양성의 확대재생산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채재은 등⁴⁾은 교육분야 개발협력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for education)을 ‘개발원조를 비롯한 공적 자금, 민간협력 등과 같은 다양한 협력방법을 활용하여 수원국의 교육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여국과 수원국 간에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교육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이를 통하여 개발도상국들의 역량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빈곤의 탈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종욱-서울 프로젝트는 이종욱 펠로우십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OFIH,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라오스 보건과학대학교 (UHS, University of Health Sciences)의 우수 인력을 우리나라로 초청하여 6개월 혹은 1년간 연수시키는 프로그램이다⁵⁾. 2011년에서 2019년까지 9년간의 계획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치의학부 (FOD, Faculty of Dentistry)의 인력들도 참여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초청 연수가 가장 중요한 사업내용이지만 동시에 한국의 전문가들이 자문관의 자격으로 현지에 방문하여 교육하는 현지방문 컨설팅도 시행되고 있다. 사업 4차년도인 2014-5년에는 3명

의 자문관이 파견되었다⁶⁾.

현재 의학분야에서의 국제개발협력은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⁷⁻⁹⁾ 안타깝게도 구강 질환 치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¹⁰⁾ 치의학 분야 국제개발협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¹¹⁾. 이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제시될 수 있겠지만 짧은 지원 역사와 부족한 경험 축적도 한 이유가 된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하여 UHS에서의 경험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더욱 많은 치의학 분야의 국제개발협력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현지 방문을 통한 자문관 활동

2015년 1월 5일 부터 2015년 2월 4일까지 30박 31일 동안 라오스 비엔티엔에 거주하며 자문관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다. 파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University of Health & Science, Faculty of Dentistry (UHS, FOD)의 치의학 교육 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
- 2) 임상전단계 실습 준비 및 진행
- 3) 지속적인 역량 유지 및 향상 방안 모색
- 4) UHS, FOD와 라오스 치의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현지 상황에 적합한 지원 방안 협의

현지 도착 후 대상교의 교수진과의 면담을 통해 기초 치의학 분야의 학생 실습교육에 대한 교수와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교과과정 상 실습에 대한 시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습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습교육을 위한 공간, 기구 및 재료가 부족하였지만 무엇보다 실습 교육 전담 교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교수진 역시 치의학 실습교육의 가장 기본인 왁스 치아 조각과 왁스 치아 재건에 대한 실습 경험이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해당 과목 담당 교수와 상의

후 이에 대한 실습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 이전과 이후 설문 조사를 통한 활동 효과 분석

실습교육 시작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대조값으로 설정하였다(Fig. 1). 동일한 항목으로 수업 종료 후 설문을 재실시하여 결과값으로 설정하여 교육 활동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학생들에게 설문조사 시 사용한 언어는 UHS, FOD 교수진의 도움을 받아 라오스어로 번역하여 진행하였다.

대상자는 3학년 20명, 4,5학년 16명 총 36명이었고, 자문관으로 부터 실습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 전 후 자신의 변화에 대해 0에서 10까지 점수화하였다. 항목은 설문에 대한 무조건적 긍정 평가를 걸러내기 위하여 알고자 하는 중심 항목 사이에 전공 선택이나 삶에 대한 만족감 등 큰 관련이 없는 항목 (7, 8, 10, 11)을 삽입하여 점수를 비교함으로써 결과를 객관화 하고자 하였다. 결과는 평균값으로 나타내었으며 평균값의 차이를 구하였고 Excel 2010 (Microsoft, USA)의 Student t-test를 이용하여 평균값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였다. 유의수준은 0.05에서 시행하였다.

진행한 설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점 척도 질문]

- 1) 형태학에 대한 지식 수준 (Knowledge of dental anatomy)
- 2) 보철학 등등에 대한 지식 수준 (Knowledge of prosthodontics)
- 3) 형태학에 대한 실습 시기 능력 (Practical skills in dental anatomy)
- 4) 보철학 등등에 대한 실습 시기 능력 (Practical skills in prosthodontics)
- 5) 현재 상태에서 환자 치료 능력 (Current ability

- to treat patients)
- 6) 환자 치료에 대한 자신감 (Patient treatment confidence)
 - 7) 현 실습 교육에 대한 만족감 (Satisfaction with current practical education)
 - 8) 치의학 전공 선택에 대한 만족감 (Satisfaction with my choice of dentistry as a major)
 - 9) 환자를 치료한다면 가질 수 있는 성실도 (Level of sincerity when treating patients)
 - 10) 내 삶에 대한 만족감 (Life satisfaction)
 - 11) 내 동료와의 친밀도 수준 (Relationship (level of closeness) with my colleagues)
 - 12) 내 동료의 형태학에 대한 지식 수준 (Colleagues' knowledge of dental anatomy)
 - 13) 내 동료의 보철학 등등에 대한 지식 수준 (Colleagues' knowledge of prosthodontics)
 - 14) 내 동료의 형태학에 대한 실습 수기 능력 (Colleagues' practical skills in dental anatomy)
 - 15) 내 동료의 보철학 등등에 대한 실습 수기 능력 (Colleague's practical skills in prosthodontics)

[학생 서술]

- 1) 내가 지금 환자를 치료한다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은? (What kind of knowledge would be most necessary for me if I were to treat a patient?)
- 2) 나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공간은? (What is the most necessary educational space for me?)
- 3) 나에게 가장 필요한 기구는? (What is the most necessary equipment for me?)



Figure 1. Scene of survey investigation.

UHS, FOD 교수진 면담 및 자문

학장, 부학장 및 교육연구실장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대학부속치과병원 및 개인 치과 의원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 개선안을 자문하였다.

결과

실습교육은 FOD의 커리큘럼에 따라 3학년과 5학년의 3개 조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5학년의 경우 1월에 지역사회 봉사 활동이 진행되어 학교를 떠나야 했기 때문에 3학년 학생을 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치아형태학 이외에도 4학년의 치과보철학 과목의 실습교육 일부를 담당하였는데 대학부속치과병원에서 가장 활발히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던 총의치보철학 실습수업 시간에 참여하여 효율적인 치과보철물 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하였다.

교육 진행 일정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치아형태학실습 - Waxing up on Dentiform (Fig. 2)

대상: 치의학부 5학년 Group I (12명)

장소: Maxillon Laboratory I,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UHS, FOD

일시: 2015년 1월 8일(수) 09:00-11:30 - 2015년 1월 12일(월) 09:00-11:30

내용: 미리 준비한 치과 모형의 삭제 준비 치아에 실습용 인레이 왁스를 이용하여 치아 모형 재건 수복 실습.



Figure 2. Waxing-up on dentiform, Maxillary Left Central Incisor.

3) 치아형태학실습 - Wax Block Carving

대상: 치의학부 3학년 Group II (12명)

장소: Maxillon Laboratory I,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UHS, FOD

일시: 2015년 1월 22일(목) 09:00-11:30 - 2015년 1월 30일(금) 09:00-11:30

내용: 미리 준비한 실습용 왁스 블럭을 이용하여 치아 조각 실습.

4) 치과총의치학 실습 수업 진행 보조

대상: 치의학부 4학년 Group II (22명)

장소: Maxillon Laboratory I,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UHS, FOD

일시: 2015년 1월 6일(화) 13:30-15:30 - 2015년 1월 30일(금) 13:30-15:30

내용: 총의치 제작을 위한 왁스립 제작 및 도치 배열 실습.

2) 치아형태학실습 - Wax Block Carving (Fig. 3)

대상: 치의학부 3학년 Group I (13명)

장소: Maxillon Laboratory I,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UHS, FOD

일시: 2015년 1월 14일(수) 09:00-11:30 - 2015년 1월 20일(화) 09:00-11:30

내용: 미리 준비한 실습용 왁스 블럭을 이용하여 치아 조각 실습.



Figure 3. Product of wax block carving.

설문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1).

Table 1. Average score of the change after practice education.

문항	1		2		3		4		5		6		7	
	B	A	B	A	B	A	B	A	B	A	B	A	B	A
3학년	2.50	7.00	2.45	6.45	1.75	6.90	1.95	6.35	0.65	4.65	1.85	5.90	4.85	8.85
차이		4.50*		4.00*		5.15*		4.40*		4.00*		4.05*		4.00*
4,5학년	4.25	6.63	4.50	6.94	4.94	6.44	5.06	6.44	4.00	5.88	3.25	5.31	7.19	7.88
차이		2.38*		2.44*		1.50*		1.38*		1.88*		2.06*		0.69
전체학년	3.28	6.83	3.36	6.67	3.17	6.69	3.33	6.39	2.14	5.19	2.47	5.64	5.89	8.42
차이		3.56*		3.31*		3.53*		3.06*		3.06*		3.17*		2.53*

문항	8		9		10		11		12		13		14		15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3학년	8.00	9.70	0.90	5.50	7.35	8.95	6.75	9.25	3.60	7.15	2.30	7.40	3.15	7.60	3.45	7.60
차이		1.70*		4.60*		1.60*		2.50*		3.55*		5.10*		4.45*		4.15*
4,5학년	9.31	9.38	5.06	6.44	8.88	9.25	8.38	8.81	5.38	6.31	5.19	6.81	5.56	7.00	5.50	6.56
차이		0.06		1.38*		0.38		0.44		0.94*		1.63*		1.44*		1.06*
전체학년	8.58	9.56	2.75	5.92	8.03	9.08	7.47	9.06	4.39	6.78	3.58	7.14	4.22	7.33	4.36	7.14
차이		0.97*		3.17*		1.06*		1.58*		2.39*		3.56*		3.11*		2.78*

B: 교육 이전, A: 교육 이후. *: P < 0.05

전체 항목 중 교육 후 점수가 낮아진 경우는 전무하였다. 3학년과 전체 학년에서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고 4, 5학년만 대상으로 한 경우 문항 7, 8, 10, 11에서 변화가 없었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변화가 없던 항목들은 설문 대상자들의 지식과 실습 시기 능력과는 무관한 내용들로 교육 과정이나 전공 선택에 관한 것들이었으며, 설문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넣었던 항목들이었다. 또한 이 값들은 실습 전에도 8점 이상의 높은 값들을 보여 단지 설문 자체에 대하여 가능한 좋은 점수를 주고자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3학년의 경우에도 8, 10, 11 항목에서 통계학적 차이는 있었으나 실습 전에도 높은 점수를 보이며 차이가 1-2점에 머무는 등 4, 5학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나머지 항목들인 자신과 동료의 치아형태학과 치료보철학

의 지식 및 시기 능력 향상에는 모두 큰 점수 향상 폭을 보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시기 능력이 향상하였다고 자체 평가하였다.

총괄 및 고안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지원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데 그 원인으로 지원이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수행되어 개발도상국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단지 물질적 지원에 그쳐 발전을 위한 역량이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¹²⁾. 의료분야의 경우를 보면 대개 의료팀이 구성되어 현지 진료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방문 치료의 대상이 일부 지역, 일부 주민에 국한되고 지속적이지 못하

고 1주일 정도의 단기에 머무르며, 해외 방문에 따른 장비와 기구의 준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일회성이거나 상징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¹³⁾. 따라서 최근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지원보다는 지속성 있으며, 파급력이 큰 내용을 원하고 있다.

이중육-서울 프로젝트는 이러한 관점에서 단편적인 초청 연수 과정 운영 혹은 하드웨어 지원 등의 한계를 벗어나 의학 분야의 통합적인 지원 방식으로 내부 인력의 역량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수 있고 대상교인 UHS의 인력들이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⁹⁾.

UHS, FOD는 라오스 유일의 치과 인력 양성 기관으로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3 Division:

Clinical division

Administrative division

Academic division

- 5 Departments:

Department of Restorative Dentistry

Department of Oral Surgery

Department of Pedodontics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Department of Basic sciences in dentistry

UHS, FOD의 교육 시설은 기초과학대학의 3층 건물 중 1층과 2층의 일부를 나누어 사용하고 있어 교육 공간이 매우 협소한 상태이었다. 특히, 치과보철학 실습실의 경우 각 60명 이상에 달하는 두 개 학년의 실습 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부득이 한 학년을 4-6개의 조로 나누어 순환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강의실로는 대형 강의실 한 곳, 중형 강의실 3곳, 소규모 실습실 2곳 (기초 실습실, 치과보철학 실습

실), 세미나실로 통합 활용되는 회의실 그리고 소규모 도서관이 한 곳 있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여러 명이 한 방에서 공동으로 교수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한 책상을 나누어 쓰기도 하였다. 수업 준비 및 각종 행정 작업에 필요한 컴퓨터는 대개 개인용 랩탑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실습수업을 위한 기본적인 장비와 재료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비치된 장비들은 노후하여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다. 게다가 치과보철학 실습실에는 집진 시설이 전무하여 실습 중 발생하는 분진의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호흡기 질환의 가능성도 높았다^{14,15)}.

강의 및 실습 교육에 대해서 FOD의 공식적인 학사 일정은 매년 9월 1학기가 시작되어 12월 말에 종료되고 2학기는 2월 초에 시작하여 6월 말에 한 학년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습실 및 강의실의 부족 때문에 원활한 학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매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이 그때 그때 변동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교과과정은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강의 및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앞서 기술한 문제로 인하여 실제로는 실습 수업이 턱없이 부족하였고 대부분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부 과목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습 교육 역시 협소한 실습실 등의 문제로 분반, 순환하는 조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기자재, 교구 및 재료가 부족하여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았고 실습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채 타과의 수업으로 이어지는 조의 경우 이론 수업의 내용에 대한 레포트를 작성하는 것으로 실습 수업이 대체되기도 하였다. 결국 실습에 관한 교과과정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교과과정 상의 외국어 교육은 Foreign Language I-III로 총 3학기에 걸쳐 영어 수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해당 과목을 이미 수료한 3학년 학생들의 수업 진행 시 학생들

이 영어 이해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실습지 침서는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프랑스어 교재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번 기간에 한국의 교재 일부를 라오스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16,17)}.

이번 자문 기간에 확인한 내용 중 가장 큰 문제는 교수자들의 실습 교육 경험 부재이었다. 이번 치아형태학 실습 수업은 FOD의 교과과정 중 최초로 진행된 것이어서 가능한 현지 교수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며 내용을 전수하였고, 치과 모형을 비롯한 충분한 실습 재료를 공급하여 당분간 실습 교육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자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던 설문 조사의 결과를 통해 공여국 자문관의 파견 실습 교육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효과는 4, 5학년 보다 3학년에서 더욱 극대화되었으며, 가장 큰 이유로는 이전까지 기구와 재료 그리고 교수진의 경험 부족으로 FOD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왁스 블록을 사용한 치아형태학 실습 (치아 모형 carving 실습)을 시행한 것 때문으로 판단된다. 4, 5학년의 경우에도 이미 진행되었던 실습에 참여하였으나 이전 실습에서는 교수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고 실습 재료의 부족으로 중도에 그만 두거나 부실하게 진행되었던 탓에 이번 실습 지도를 받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추가로 이번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던 치아형태학 실습의 효과를 파악한 FOD 측이 실습 교육을 받지 못한 다른 3학년 학생들과 4학년 학생들에게도 시행하였으며, 이번 교육을 함께 하였던 실습 보조 강사가 FOD 주임교수의 지시를 받아 실습을 수행한 것이다. 이러한 촉진이 수여국 대학의 교육 발전에 대한 동기 부여와 지속성 제공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¹⁸⁻²⁰⁾.

교육 과정 및 교육 후 학장단 및 주요 교수진 그리고 학생들과의 면담과 자문을 시행하였다. 교수진들은 라오스 치의학 교육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

라 치과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우선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대학, 교수 및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들었다^{21,22)}. 따라서 이종욱-서울 프로젝트와 같은 사업 형태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자문관이 직접 여러 교과목의 수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구두로 전해듣는 간접 경험이 아닌 현실적으로 정확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학생들과의 다양한 접촉을 통해 앞선 지식과 술기 능력에 대한 학생들의 열망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본 연구는 라오스의 University of Health & Science, Faculty of Dentistry (UHS, FOD)에서 수행된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사례를 통해 치의학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효과와 방향을 확인하였다. 기초 및 임상 치의학 실습 교육을 자문하고 지도하였으며, 교육 이전과 이후 설문 조사를 통한 활동 효과 분석 결과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술기 능력이 향상하였다고 자체 평가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공여국 자문관의 파견 실습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였고, 이러한 활동이 수여국 대학의 교육 발전에 대한 동기 부여와 지속성 제공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수여국의 발전을 위한 치의학분야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ODA를 활용한 개도국 과학기술 정책자문 방안 연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3.
2. 대한민국 ODA 백서. ODA Korea, 2017.
3. 채재은, 김철우: 라오스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 ODA 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75-92
4. 채재은, 우명숙: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ODA 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5. 김경희: 개발 경험 지식 공유 사례 분석 미네소타 프로젝트와 이종욱-서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2017.
 6. 이종욱-서울 프로젝트 1차년도~5차년도 결과보고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16.
 7. Bills CB, Ahn J: Global Health and Graduate Medical Education: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J Grad Med Educ* 8(5): 685-691, 2016. doi: 10.4300/JGME-D-15-00774.1
 8. Panosian C, Coates T: The new medical “missionaries”: grooming the next generation of global health workers. *N Engl J Med* 354(17): 1771-1773, 2006.
 9. Drain PK, Holmes KK, Skeff KM, Hall TL, Gardner P: Global health training and international clinical rotations during residency: current status, needs, and opportunities. *Acad Med* 84(3): 320-325, 2009. doi: 10.1056/NEJMp068035
 10. Petersen PE, Bourgeois D, Ogawa H, Estupinan-Day S, Ndiaye C: The global burden of oral diseases and risks to oral health. *Bulletin of the WHO* 83(9): 641-720, 2005. doi: S0042-96862005000900011
 11. Donaldson ME, Gadbury-Amyot CC, Khajotia SS, Nattestad A, Norton NS, Zubiaurre LA, Turner SP: Dental Education in a Flat World: Advocating for Increased Global Collaboration and Standardization. *J Dent Educ* 72(4): 408-421, 2008.
 12. 김창환: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 증장기 실행 전략 수립. 한국교육개발원, 2016.
 13. Green T, Green H, Scandlyn J, Kestler A: Perceptions of short-term medical volunteer work: a qualitative study in Guatemala. *Global Health* 5: 4, 2009. doi: 10.1186/1744-8603-5-4
 14.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ilicosis in dental laboratory technicians – five states, 1994-2000. *MMWR Morb Mortal Wkly Rep.* 53(9): 195-197, 2004.
 15. Yurdasal B, Bozkurt N, Bozkurt AI, Yilmaz Ö: The evaluation of the dust-related occupational respiratory disorders of dental laboratory technicians working in Denizli Province. *Ann Thorac Med* 10(4): 249-255, 2015. doi: 10.4103/1817-1737.167073
 16. Lockheed ME, Vail SC, Fuller B: How Textbooks Affect Achiev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Evidence from Thailand.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8(4): 379-392, 1986. doi: 10.2307/1164195
 17. Mohammad RF, Kumari R: Effective Use of Textbooks: A Neglected Aspect of Education in Pakistan. *Journal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3(1): 1-12, 2007.
 18. Amos I, Ifeoma LG: Assessment of Teacher Motivation Approaches in the Less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Education and Practice* 6(22): 10-17, 2015.
 19. Richardson E: Teacher Motivation in Low Income Contexts: An Actionable Framework for Intervention. Teacher Motivation Working Group 2014.
 20. Kremer M, Holla A: Improving Education in the Developing World: What Have We Learned from Randomized Evaluations? *Annu Rev Econom* 1: 513-542, 2009. doi: 10.1146/annurev.economics.050708.143323
 21. Lanata CF: Human resources in developing countries. *Lancet* 369: 1238-1239, 2007. doi: 10.1016/S0140-6736(07)60573-X
 22. Kabene SM, Orchard C, Howard JM, Soriano MA, Leduc R: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in health care: a global context. *Hum Resour Health* 4:1-17, 2006. doi: 10.1093/heapol/czw093

ABSTRACT

The experienc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Laos PDR

Yoo-Mee Lee and Seung-Pyo Lee

Department of Oral Anatomy,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s a project in which donating countries aim to enhance the growth of the recipient countries through grant aid and/or credit assistanc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cludes ODA, and is the action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that tries to protect basic human rights through abolishing poverty. Through combined effort in improving education, developing countries can expand their capabilities and the fundamental solution to escape from poverty may be found. These kinds of exchanges are being actively performed in medical fields, but dentistry is regrettably lagging in those aspects. Therefore this study aspires to lay the foundations for future international partnerships in dentistry.

From January 5, 2015 to February 4, 2015, acting as the advisor of the Lee Jong-Wook Fellowship, a subsidiary project of the KOFIH, diverse educational activities were conducted at the Lao University of Health & Science, Faculty of Dentistry (UHS, FOD). First, instructions and counselling for basic and clinical dentistry education were carried out. Surveys were conducted on 56 subject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to analyse the result of the educational program. Interviews and consulting with the professors of UHS, FOD were also performed.

Practical training was conducted in dental anatomy and complete denture. In a post-training survey, students who received the training showed great progress in knowledge of dental anatomy and prosthodontics, self-evaluating themselves and their peers to have grown in their capabilities.

Through this study the effectiveness of practical education conducted by advisors sent from donating countries and the fact that these activities contribute to the motivation and continued interest in helping the universities of the recipient country advance their educational programs were confirmed. Therefor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in educational fields of dentistry will be increasingly in need for the progress of the recipient countries.

Keyword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DA, Laos